지역 소식통

부안군의회, 하반기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 소통의정 펼쳐

부안군의회가 제285회 임시회가 부안군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해 사업장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행정의 문제점들을 살펴 개선방향을 찾는 소통·공감하는 현장위주의 의정을 펼치고 있다.

의회는 부안군이 앵커 사업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매창사랑의 테마공원 조성사업 ▲천일염 산업 육성 사업 ▲창조농업 소득 지원사업 등 ICT를 적용한 6차 산업 선도 농가를 포함한 22개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살펴볼 예정이다.

의회는 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해 담당공무원 및 공사관계자로부터 사업장별 공사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의정활동 중에 지적한 사항이 개선돼 진행되고 있는지 살피면서 주민의 의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오세웅 의장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부안군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복지증진을 다지는 사업인 만큼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사업진행 중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의 협치를 통한 적극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의회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부안=이옥수기자

고창읍, 88올림픽기념숲 새 단장

고창읍이 벚꽃 명소로 알려진 88올림픽기념숲을 새 단장했다고 7일 밝혔다.

88올림픽기념숲은 고창읍이 1읍면 1명소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는 공원으로 이번 환경정비는 공원 내 운동시설 정비, 노후 화장실 철거 및 교체 등 공원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재정비 됐다.

'1읍면 1명소 가꾸기 사업'은 읍면별로 주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명소를 지정해 아름답게 가꾸고, 명소로 가꾸어 명품 고창건설의 기초가 될 수 있게 고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박병도 고창읍장은 "편하고 안전한 쉼터로서의 공원이 역할을 다 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갈 것이며, 일상 속 힐링 관광명소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명품 관광지를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연료 절약·편리한 이용 '일석다조'

정읍시 브랜드 콜택시 '내장산브랜드콜' 자가용 택시로 '인기'

정읍시 브랜드 콜택시인 '내장산브랜드콜(이하 내장산콜)'이 '자가용 택시'로 불리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정읍시 브랜드 콜택시인 '내장산브랜드콜(이하 내장산콜)'이 '자가용 택시'로 불리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내장산콜은 지난해 4월 출범됐다. 통합 콜 운영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정읍의 도시 규모에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당시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88.5%의 압도적인 찬성 결과가 나오면서 추진에 가속도가 붙었다.

시는 "콜택시 통합은 콜 택시 사업자 간 소모적인 경쟁을 지양하고, 안전하고 친절한 교통 서비스 제공은 물론 운수 종사자들의 수익 증대, 교통 환경 개선과 매연 감소 등 일석다조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읍지역 택시 597대 중 432대가 참여하고 있다.

내장산콜은 정읍시민 뿐만 아니라 시를 방문하는 어느 분이라도 편하게 호출해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정읍시민들은 내장산 콜택시를 '자가용 택시'라고 부를 정도로 유용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

자체 스마트폰 앱을 개발·설치함으로써 이용의 편리성도 높였다.

이용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자택이나 직장 등 원하는 장소 어디서나 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 시 소요되는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서 좋다.

무엇보다 자가용 이용이 크게 줄어서 시내 주요도로 교통 상황도 좋아졌고, 에너지 절약과 환경 오염 예방 효과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콜택시 기사 입장에서도 이용객이 늘어나니 소득이 증가하고, 공차 거리 단축으로 차량 연료를 절감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초기 1일 평균 콜 호출건 수가 1000여 건이었으나 최근 1500여 건으로 늘어난 데서 알 수 있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시민들의 이용이 늘고, 시민들께서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사회복지인이 행복하면 시민이 행복합니다'

정읍시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성황'

정읍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함께하는 화합과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시는 7일 국민체육센터에서 '제18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사회복지인이 행복하면 시민이 행복합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는 정읍시가 주최하고 정읍시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했다.

이 자리에는 김생기 시장과 유진섭 시의회 의장을 비롯 사회복지 시설 및 기관·단체 종사자 25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소외되고 어려운 곳에서 묵묵히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사회복지 유공자 15명과 사회복지 활동 수기 당선자 11명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특히 각 기관·단체장들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뜻깊은 덕담 메시지도 낭송해 관심을 모았다.

기념식에 이어 진행된 체육대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과 기관·단체 종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친선경기를 펼치며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생기 시장은 축사를 통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쳐 소외계층인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애맞춤형 복지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참석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그간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정읍의 사회복지 발전의 견인차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시민의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복지 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가져오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줄이기 만전

RFID방식 개별계량기기 설치 사업 연차적 추진

고창군이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전자태그(RFID)방식의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기기 설치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41대를 설치해 공동주택과 아파트 4424세대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RFID방식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기기는 여름철 악취, 해충 등 비위생적인 관리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공동주택과 아파트 주민 불편을 줄이고 버린 만큼만 수수료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올해도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RFID방식 개별계량기기를 공동주택과 아파트 에 하반기에도 19대를 추가설치할 계획이며,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종량제 기기 보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군 환경시설사업소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파트와 공동주택 등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의 수분을 최대 제거 후 배출하면 훨씬 효과적이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별계량기기를 추가로 설치하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는 다양한 시업을 추진해 주민불편을 개선하고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군에 한 발 더 다가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 운영 강화

"가족과의 저녁이 있는 삶이 있고, 가정이 화목해야 일의 능률도 오릅니다!"

정읍시가 9월부터 '가정의 날'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그간에도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운영해왔으나 업무 추진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지켜지지 않았다.

시는 가정의 날 운영을 강화해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근무문화를 정착시키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이후는 원천적으로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상급기관 감사와 재난재해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부서장 또는 부시장의 결재를 얻은 후 가능하다.

시는 "직원들의 반응이 아주 좋다"며 "11월에는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하여 2개월 간의 '가정의 날' 운영 중 발생한 애로사항 등을 접수하고, 직원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제도 정착을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가정의 날'이 정착돼 그동안 만연했던 불필요한 야근 등 비효율적인 업무행태가 개선되고, 새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인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환경센터 환경 교육장으로 변모

줄포면에 위치한 부안군 환경센터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동안,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지역주민과 협력해 '분리수거 및 쓰레기 줄이기' 홍보 교육장으로 환경센터를 활용할 방침이다.

부안군 친 환경축산과 환경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환경·사회단체, 초·중·고등학생은 물론, 각 읍·면 이장단 회의를 환경센터에서 개최하여 '분리수거 및 쓰레기 줄이기' 홍보교육과 함께 각 공정별 처리시설을 견학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더욱이 부안군 친 환경축산과에서는 마을과 협력해 사계절 꽃 가꾸기를 조성하고, 최근 후촌마을정보화교육센터, 마을회관 주변 및 환경센터에 마가렛 데이지 꽃 1만 본을 식재하여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환경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국화, 금계국등 다양한 꽃들을 주민과 함께 식재하여 부안군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가꾸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부안=이옥수기자

고창경찰 부안파출소 주민밀착 탄력순찰 홍보

고창경찰서 부안파출소는 부안면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관내 36개 이장 및 주민 30명 대상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의 취지와 목적, 예상되는 효과 등에 대해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다.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제는 주민들이 요청하는 지점과 시간 위주로 지역경찰 순찰체계를 전환, 수요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취약지역을 순찰하는 제도이다.

부안파출소장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안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을 강화하여 체감안전도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